

# SPECIAL REPORT

와인앤시티의 창간 4주년을 맞아 기념호다운 잔칫상을 마련했다.

우리네 아픈 역사의 배경이기도 한 알타가 위치한

우크라이나 역사와 와인에 얽힌 이야기,

다양한 페루아의 나라 칠레 와인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풀어본다.

- I. 크림리아 반도의 알타 그리고 알타회담의 와인
- II. 다양한 페루아와 도전정신이 만났다, 칠레 와인

# 크리미아 반도의 알타

## 그리고 알타회담의 와인

지난 해 2012.10.22~11.3. 기간 흑해와 발칸반도의 5개 나라를 찾아다니고 이어서 그들의 와인, 인문과 역사를 함께 취재하고 돌아왔다. 지난 번의 조지아 와인(Georgian Wine)에 이어 이번 호에 크리미아 반도와 알타, 그리고 전설적인 와이너리 마산드라에 관한 이야기를 실는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1945년 2월, 크리미아 반도 알타에서 3개국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후 처리를 논의한 역사적 회담이 있었다. 이른바 알타회담(Yalta Conference)이다. 우리에게도 이 회담은 한반도를 갈라놓은, 어쩌면 잊을 수 없는 그러한 회담이기도 하다. 이 기회에 크리미아 반도의 와인과 알타회담에 쓰였던 와인의 이야기를 함께 전한다.

이 기회를 빌어 필자가 방문했을 때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취재와 시음을 함께 거들어 준 마산드라의 사장 니콜라이 보이코(Nikolay Boyko)를 비롯해 부 관장 갈리나 미티아예브(Galina Mytyayev), 해외 담당 발렌틴 미티아예브(Valentyn Mytyayev), 그리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일등 서기관 뽀뜨르 말라늑(Petro Malaniuk)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 그리고 필자의 우크라이나 체재 중 여러 편의를 제공해 준 김형식 지사장, 한강식당의 김무해 님께 고마움을 함께 전한다.

글·최훈(보르도와인아카데미 원장) | 포토그래퍼·박현영 | 일부 사진출처·Quoted from Massandra Cellar's Document with the cellar's consent





크리미아 반도의 형상. 북쪽은 평원인데 비해 남쪽의 휴양지가 있는 알타의 바닷가는 가파른 산악으로 되어있다 (출처 : Google Earth)

## 크리미아 반도(Crimea Peninsula)의 좌표

크리미아 반도는 우크라이나 공화국 최남단에 자리 잡고 있다. 앞쪽의 흑해를 향해 돌출한 반도로서 달리 이를 크림 반도라고도 한다. 면적은 25,500km<sup>2</sup>. 반도와 그 주변 지역이 크림 주로서 255만 명의 인구를 포용하고 있으며 주도(州都)는 심페로폴(Simferopol)이다. 반도의 북부는 비교적 넓은 평지인데 비해 남부는 크림 산맥이 바다로 향해 가파르게 내려앉은 산악지역이다. 해서 해안쪽 휴양지대는 바닷가에 얼마 안 되는 좁은 여유 공간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눈여겨 볼 일은 바로 이 반도에서 우크라이나 대부분의 와인이 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반도는 북해를 끼고 앉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솔한 외세의 침입과 그들의 정복이 뒤따랐다. B.C 1~2세기에는 그리스인과 로마제국이, 3~11세기에는 몽고의 침입과 한 국(汗國, Crimean Khanate)의 설립, 15세기에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지배가 있었다. 그리고 18세기(1783)에는 제정 러시아의 속령(屬領), 20세기에는 소비에트 연방의 한 자치공화국(1921~45)으로서 입지를 유지했다. 또한 2차 대전 중에는 독일군이 한때 이곳을 점령한 바도 있었다. 1991년,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면서 크리미아 반도는 이 나라의 영토로 되돌아 왔다.



테러에 의해 숨진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 2세 및 크리미아 내전 때 숨진 희생자들을 위한 기념 예배당

## 알타회담이 있었던 휴양지 알타(Yalta)

알타는 크리미아 반도의 제일 남쪽,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는 휴양지이다. 지난날 이 반도가 제정 러시아의 속령으로, 그리고 소련의 한 공화국으로 있을 때 그들의 왕족과 귀족, 통치계급의 가족들이 즐겨 찾던 휴양지이다. 알타는 몇 가지 특징적인 사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우선 기후가 지중해성이어서 매우 온난하다. 이러한 연유로 추운 지방의 제정 러시아와 소련의 여유 있던 사람들이 이곳을 즐겨 찾았던 것이다. 다음, 역사적인 알타회담이 개최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45.2. 4~11일 기간, 알타의 리바디아 궁(Livadia Palace, 러시아 황제의 하계 궁전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 세 정상이 자리를 같이 해 전후의 처리와 새 질서를 정리한 회담이다. 참고로 2차세계대전 중 3차례 연합국 정상들의 회담이 있었다. 첫 번째가 테헤란 회담(1943), 두 번째가 알타회담(1945.2), 세 번째가 포츠담회담(1945.6) 이었다. 달리, 알타가 있는 주변에 우크라이나의 훌륭한 와인이 나고 있다. 바로 크리미아 반도의 와인이기도 하다.



알타의 리바디아 하계 궁전의 전경. 이곳에서 제정 러시아 황제의 가족들이 여름을 보내기도 했다. 1945년 2월 알타회담이 열렸던 곳이다.

알타는 원래 회람의 선원들이 상륙을 위해 안전한 해안을 찾았던 곳이다. 이러한 알타가 관광 휴양지로 자리 잡은 것이 1860년대, 바로 알렉산더 2세(Alexander II, 1818~1881)가 이곳을 하계 수도(summer capital)로 정한 데서 비롯한다. 황제가 이러한 결정을 보게 된 배경에는 당시 크리미아 전쟁의 패배로 수많은 사람이 이곳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오래지 않아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추운 지방의 귀족과 그들의 가족이 찾아들면서 알타는 이름난 휴양지가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크리미아 반도의 남쪽, 흑해에 면한 알타의 리바디아(Livadia)에 하계 궁전을 짓고 제정 러시아의 세 황제와 가족들이 즐겨 찾던 여름철 주거지가 되면서 휴양지로서의 면모를 더했던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소련 통치자들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다. 1920년, 레닌이 이 지역을 노동자의 휴양지역으로 공식 선언한 바 있으며 스탈린은 마스드라 궁을 여름 주거지로 사용하고 또한 톨스토이, 체홉 같은 대문호들이 알타에서 여름을 보내기도 했다.

휴양지 알타의 발전사를 가능해 보면 150여 년의 역사가 된다. 시가지는 구 시가지와 신 시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반도의 곳곳에는 이름난 궁전, 별장, 교회, 정원들이 들어있어 솔한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다. 알타의 인구는 145,000명, 시가지의 동서 구간 연장은 70km에 이른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 중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독일, 유럽 쪽 사람이다. 근래에는 중국인을 비롯해 아시아 쪽에서도 꽤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다했다. 알타의 휴양지는 가파르게 내려앉은 산들이 남겨놓은 좁은 여유공간을 비집고 다들어 놓았다. 바닷가의 긴 통로를 따라 길가에 호텔, 레스토랑, 휴양시설 등이 들어있다. 이른 아침 해안을 거닐다 보면 밤새운 술주정꾼, 개와 고양이와 함께 뛰어놀면서 그들의 천국을 만들고 있다.



알타 휴양지의 해안 거리

## 우크라이나의 와인

### 와인의 역사

우크라이나의 와인에 대해 우리들은 거의 아는 바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20여 년 전, 비로소 우리들과 소통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이 나라를 찾아보고서야 여느 나라 못지않게 훌륭한 와인이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 와인의 역사는 BC 4세기 경 이미 크리미아 반도의 남쪽 해안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비해 국토의 북쪽, 즉 키예브(Kiev)와 체르니브(Chernihiv) 일대의 와인은 11세기 경, 수도원의 수도사들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되었다.

우크라이나 근대 와인 산업의 시작은 크리미아 반도가 캐서린 11세(1729~1796)에 의해 1783년 러시아 제국의 영토로 귀속된 무렵 부터이다. 1820년, 미하일 보론초브(Mikhail Vorontsov)가 처음으로 포도나무를 식재하고서 알타 인근에 꽤 큰 규모의 와이너리를 설립한 바 있었다. 또한 그의 부를 이용해 세계적인 명주의 컬렉션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와인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당사자는 황태자 레브 골리친(Lev Golitsyn)이다. 크리미아 전쟁(1854~1856) 직후 처음으로 '러시아 샴페인'을 빚은 바 있다. 바로 그의 소유지인 알타 부근의 노비 스베트(Novyi Svet)에서 기포가 이는 와인을 빚은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황태자를 가리켜 '러시아 샴페인의 아버지'라고도 한다.

더구나 해박한 와인에 대한 식견을 갖고 와인의 양조와 컬렉션으로 일생을 보낸 그는 러시아 와인산업을 일으키는데 열정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마산드라의 컬렉션이 그에 의해 시작된 것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지금 그를 가리는 흰색 흉상이 마산드라 와이너리(Massandra Cellar)의 본관 입구에 세워져 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와인산업의 절정기는 알타의 인근에 세워진 세기적 와이너리인 마산드라의 건립과 맞물려 있다.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였던 니콜라스 11세(Nicholas II, 1868~1918)에 의해 와인 셀러가 건설되고 레브 골리친에 의해 운영된 시기이다. 웅장한 규모, 수많은 명주의 컬렉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의 방문 등으로 인해 마산드라 와이너리는 전설적인 와이너리로 알려져 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방 자치국의 일원으로 있을 당시 포도밭 면적은 2,500km<sup>2</sup>. 소련방에 가장 많은 와인을 공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1986년, 우크라이나의 와인산업에 위기가 찾아 들었다. 당시 소련 수상이던 미하일 고르바초브가 와인 소비량의 제한 캠페인을 가져 한 때 우크라이나의 포도밭은 800km<sup>2</sup>나 사라지기도 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새로이 이 나라의 와인 산업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다.

### 와인산지

우크라이나의 와인산지는 크게 4곳에 분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가운데서도 온난한 기후를 보이는 크리미아 반도 및 그 주변이 가장 이름난 산지이다.

- 크리미아, 발라크라바(Balakhava)
- 남부 우크라이나(Kherson, Dnipropetrovsk, Odessa Oblasts)

### 포도 종

#### 화이트 포도종

우크라이나 와인을 빚는 데 쓰이는 포도 종에는 비티스 비나페라와 토착종이 있다.

- 알리고떼(Aligoté) · 뽀노 그롬(뽀노 그리, 뽀노 블랑) · 리슬링
- 뮌스가(Muscat) · 이사벨라(Isabella) · 샤르도네
- 르카치텔리(Rkatsiteli) · 페테아스카(Feteasca) · 트라미네

#### 레드 품종

- 까베르네 소비농 · 메를로 · 뽀노 누아



크리미아 반도 알타 주변에 있는 일루슈타(Alusta) 와인산지의 포도밭

# 전설적인 와이너리, 마산드라의 컬렉션



마산드라 와이너리 본관 입구 전경

## 와이너리의 탄생

세상에 드물게 이름난 와이너리에 마산드라 와이너리(Massandra Cellars)가 있다. 우크라이나 크리미아 반도의 알타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어느 면에서는 거의 전설적인 와이너리이다. 사실, 와이너리라고 하면 통상 와인을 빚는 양조장을 가리킨다. 때로는 규모가 큰 와이너리의 경우, 지하에 꽤나 큰 까브(Cave, 저장고)를 두는 것이 통례이다. 샴페뉴 지방의 샴페인 하우스가 이러한 사례에 든다.

그러나 마산드라는 단지 와이너리라고 하기에는 거대한 하나의 요새(fortress)와 같다. 건물의 외양이나 실제 규모가 단순한 양조장의 이름을 뛰어 넘고 있어 그러하다. 지상의 넓은 표면을 깔고 땅 속에 거대한 7개의 터널을 만들어 약 100만 병의 와인을 수장하고 있다. 터널 하나의 길이가 150m의 규모라 한다. 지하의 공간은 크리미아 뒷산의 암반을 파고들어 정교하게 마련된 환기 공간을 통해 늘 신선한 공기의 유입이 있으며 지하로 흐르는 개울물에 의해 셀라의 온도는 늘 12~14℃의 수준, 그리고 습도는 90% 수준으로 자연스레 유지하고 있다.

또한 산허리의 바위를 뚫고 만든 까브(셀라)이어서 견고하기 이를 데 없다. 1920년, 크리미아 일대에 참담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도 마산드라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 와이너리를 건설케 된 배경에는 연유가 있었다. 하나는 크리미아 일대가 포도재배의 적지라는 사실, 그리고 당시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였던 니콜라이 II 세가 남달리 와인에 대한 애착과 갈망이 있었다는 사실, 이에 더해 황태자이던 레브 골리친(Lev Golitsyn)의 뜨거운 와인 양조에 대한 열정과 재능 때문이다.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한 것은 19세기 초 미하일 보른초보(Mikhail Vorontsov)였다. 그는 러시아 황제보다 더 많은 부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당시자로서 남달리 와인에 집착했었다. 유럽에서 포도나무 묘목을 들여와 크리미아 땅에 성공적으로 접목시켜 와인을 빚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니콜라이 II 세 황제가 마산드라 와이너리의 건설을 결심케 되고 완공 후 실제적 운영과 관리를 골리친에게 맡긴 것이다. 1893년 착공, 1897년 완공을 보았다.



와이너리 지하 까브의 컬렉션

## 황태자 골리친이 빚은 마산드라의 와인

골리친 황태자는 와인 양조에 대해 탁월한 재능을 보인 러시아의 와인메이커이기도 하다. 그 자신이 크리미아의 테루아를 연구하고 빼어난 와인을 빚었다. 특히 그의 와인 블렌드(wine blend)에 대한 재능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이러한 재능이 오늘날 마산드라의 환상적인 컬렉션을 가능케 했다. 이 와이너리에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전설적인 2개의 와인 리스트가 전해지고 있다. 하나가 'Honey of Altae Pastures', 다른 하나가 'Seventh Heaven'이다. 안타깝게도 골리친은 이들 와인에 대한 양조 레시피를 일절 남겨 놓지 않았다. 세간에서는 그가 무덤으로 가져갔다고 이야기한다.

골리친은 매년 빈티지의 와인을 샘플의 성격으로 마산드라의 컬렉션으로 수장해 왔었다. 그리고 황태자 개인의 컬렉션으로 유럽의 명주들을 이곳에 모아두었다. 마산드라의 컬렉션은 어디까지나 연구의 목적이었으나 지금은 상업적 취지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연간 양조된 10만 병 중, 절반 가량이 시중에서 매각된다. 최근 와이너리의 컬렉션이 국제시장에 매각된 사례도 있다. 마산드라의 컬렉션에 들어 있던 샤토 디켄(Ch. d'Yquem 1840), 뮌스카 루넬(Muscata Lunel, 1848), 마테리아 리베이로 세코(Madeira Ribeiro Secco, 1837), 셰리 드 라 프론테라(Sherry de la Frontera, 1775) 등의 와인들이 2001년 소더비 경매에 선보여졌고 이 중 두병의 세리가 낙찰된 바 있다. 한병에 미화 5만 불.



지하 와인 까브의 7개 터널 중 하나

### 마산드라의 화려한 와인들

2005년 10월, 마산드라 와인이 세인의 이목을 끈 일이 있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마산드라 와이너리를 방문하고 와이너리 축에서는 벨슨이 즐겨 마시던 마르살라 포티파이드 와인 2통을 선물로 내놓은 일이 있었다. 이는 벨슨의 트라팔가 해전 승리 200주년 기념으로 빛은 것이었다. 그날 저녁 대통령이 호스트한 갈라 디너에서 400명의 참석자들이 함께 건배를 올리면서 마산드라의 명주에 영광을 돌렸다.

마산드라의 와인이 진가를 나타낸 것은 1945년 2월의 알타회담 때이다. 바로 이 집의 와인들이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 등 회담에 참석한 정상들의 식탁에 서보되었던 것이다. 리바디아 레드 포트와인(Livadia Red Portwine), 수로츠 코쿠르 디저트 와인(Surozh Kokour Dessert Wine), 레드 스톤 뮌스까(Red Stone Muscal) 등의 와인들이 회담의 정상들에게 시음되었던 것이다. 오늘날까지 이들 와인은 전설적인 마산드라의 컬렉션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 시련의 시기

마산드라 와이너리는 늘 그 이름처럼 영광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여러 차례 시련이 닥치기도 했다. 1920년, 크림리아 반도에 밀어닥친 지진의 재난, 볼셰비키 혁명 후 스탈린의 붉은 군대가 마산드라의 와이너리 정문에 밀어닥쳤을 때 자칫 영원히 문을 닫을 뻔했던 순간, 1941년 크림리아 반도에 상륙한 독일 나치군에게 컬렉션을 빼앗길 뻔했던 수난 등등. 그러나 당시의 총 지배인 알렉산더 예그로브(Aleksander Yegrov)의 지시에 따라 와인 병을 비밀 장소로 이송해 안전하게 보관했다. 다만 아직 병입되지 않고 오크통에 들어있던 와인을 흑해 앞바다에 쏟아버린 일로 인해 이 와이너리에는 유일하게 1941년 빈티지 와인이 없다.



마산드라 와인셀러의 실제 운영을 맡았던 러시아의 위대한 와인메이커 레브 골리친



마산드라 까브의 컬렉션



까브의 컬렉션 일부



알타 회담의 세 정상들. 왼쪽에서부터 영국의 처칠 수상,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소련 수상 스탈린



정상회담이 개최된 회담장 입구. 이곳에서 왼쪽의 정상들의 기념촬영이 있었다

### 알타회담에 쓰인 와인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알타회담이 1945년 2.7~11일 까지 크림리아 반도의 남쪽, 알타의 이웃에 있는 리바디아 하계 궁전에서 열렸다. 이 궁전은 1911년에 건설된 것이다. 회담의 취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투 처리에 관한 포괄적인 방침의 설정이었다. 이 가운데에는 독일의 분할 점령, 폴란드의 처리, 소련의 대 일본 참전 등에 관한 것이었다. 회담은 극비로 진행 되었다. 소련의 스탈린이 1945년 2월 1일, 북에서 철도로 심페로폴로로 내려오고 2월 2일, 영국의 처칠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순양함 퀸시(Quincy)로 알타에 도착, 회담을 가졌다. 2월 3일, 한밤중 각자 항공기로 알타의 회담 장소로 모여들었다. 마치 첩보영화와 같이 3국의 정상들이 극비로 알타 회담장소에 집결한 것이다. 회담이 열린 곳은 리바디아 궁전. 그리고 세 사람의 정상이 의자에 앉아 마료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곳이 회담장소의 바로 앞쪽 현관이었다. 세 정상이 회담을 마치고 합의록을 서명한 곳이 2층의 빌라드 룸이었다.

회담의 진행은 세 나라의 정상들이 돌아가면서 만찬을 초청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 만찬에는 식사에 곁들인 와인들이 서보되었고 이들 와인의 대부분은 마산드라의 수장품이었다. 물론 일부 와인은 정상들이 자기의 기호에 따라 직접 반입하기도 했다고 한다. 마산드라의 관련 기록과 와이너리 관계자의 증언에 의해 당시 회담에 쓰인 와인들의 리스트를 마련해 보았다.

- Aperitif Wine(식전주)** : 코쿠르 화이트(Kokour white), 마산드라 셰리(Massandra Sherry)
- Table Wine(메인코스 와인)** : 리바디아 레드 포트(Livadia Red Port), 마산드라 포트(Massandra Port)
- Dessert Wine(식후주)** : 레드 스톤 뮌스까(Red Stone Muscal), 수로츠 코쿠르 디저트(Surozh Kokour Dessert)

한 가지 멘트할 일은 스탈린이 가장 즐겨 마신 와인이 리바디아 레드 포트라 했다. 이는 100%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빛은 것이다. 또 달리 회담 장소의 스케치에는 담배 연기가 가득했다고 전해진다. 루즈벨트는 시가렛, 처칠은 시가를, 그리고 스탈린은 파이프를 입에서 떼지 않았다고 한다. 세 사람이 내뿜은 담배연기가 알타회담의 또 다른 스케치였다. 회담이 끝난 후 처칠과 루즈벨트는 알타의 서북쪽에 위치한 세바스토폴(Sevastopol) 군항으로, 스탈린은 열차편으로 각자의 목적지로 향했다.



마산드라 와인 가브의 숙성저장고



### 마산드라를 찾는 세계적 명사들

마산드라가 펴낸 기록(1897~2011)을 보게 되면 정말 기라성 같은 세계적 명사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크림리아 반도의 전설적인 명물이어서 그러한 듯하다. 그만큼 이 와이너리는 명성에 걸맞게 뛰어난 와인을 수장하고 있었다. 포티파이드 와인으로서 세리, 포트와인, 그리고 디저트 와인에는 스위트 와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마산드라의 역사는 무려 115년이 나 된다. 이 세월 동안 와인 셀라를 다녀간 명사들의 면면을 살펴본다.

- 니콜라이 II세
- 헤밍웨이
- 처칠 부인
- 후르시초프
- 티토
- 셀라시에 황제
- 체홉
- 해리만(미국 국무장)
- 푸틴
- 엘리자베스 여왕
- 마르셀 기갈
- 미셸 로랑
- 후진타오
- 브레즈네프
- 호치민
- 가가린

### 마산드라의 와인 시음

2012.10.26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브에서 다시 국내선으로 크림리아 반도의 심페로폴(Simferopol) 공항에 도착했다. 자동차로 약 2시간 달려 목적지 알타에 이르렀다. 곧장 예약된 마산드라 와이너리를 찾았다. 와이너리를 본 첫인상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와이너리라기 보다는 마치 요새와 같았기 때문이다. 운동장처럼 넓은 지상의 공간에 T자형의 와이너리 건물이 들어서 있다. 휴일인데도 사장 니콜라이 보이코(Nikolay Boyko)가 우리 일행을 맞이해 주었다.

와이너리의 셀라에 관해 의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후, 공장 시음실에서 와인들의 테이스팅을 가졌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들 와인이 그 유명한 마산드라의 컬렉션인 동시에 알타회담 때 서브되었던 것이다. 기본적으로 테이블 와인과 포티파이드 와인을 나누어 테이스팅했다. 이 자리에는 공항에서 우리들을 안내해준 수출담당 발렌틴 미티아예브(Valentyn Mytyayev)가 자리를 함께 했다.

(시음한 와인 리스트)

- Kokour White, 2007, Massandra
- Saperavi, 2007, Massandra
- Sherry Massandra
- Livadia Red Port (18', Cabernet Sauvignon 100%)
- Surozh Kokour Dessert
- Red Ston Muscat

사장의 친절한 테이스팅 리드와 설명을 들으면서 이들 와인이 세계의 정상들이 마시던 바로 그 전설적인 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놀라워했다. 와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에 앞서 나 자신이 모르고 있던 새로운 세계로 입문한 듯해 스스로 감격했다. 사장과 인터뷰에서 들은 다음 말이 매우 의미있다고 여겨졌다. "마산드라는 한국 시장에 진입을 희망한다. 와인리뷰와 협력해 성취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마산드라의 와인이 한국의 음식과 잘 매칭되리라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3년 Korea Wine Challenge에도 꼭 참가해 마산드라의 실재를 알리고 싶다." 마산드라 와이너리를 나서면서 이 위대한 역사적 유산을 찾은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이번 여행의 성과라 여겼다.



마산드라 와이너리를 총괄하는 사장 니콜라이 보이코(Nikolay Boyko)



마산드라 와이너리 시음실의 테이스팅. 왼쪽으로 부터 현지 안내원, 수출 담당 발렌틴 미티아예브(Valentyn Mytyayev), 사장 니콜라이 보이코 및 필자

# 마산드라 와인의 수난

-지구상 유일하다는 마산드라 수장품은 어떻게 구출되었나!

역사상 전쟁에 맞닥뜨려 한 나라의 국보나 이에 견줄만한 귀중품을 적의 유린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안전한 피난처를 찾은 일은 허다했다. 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 일. 특히 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군의 침탈을 피하기 위해 와이너리의 귀중한 와인들을 옮겨 숨긴 일이 심심찮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 동구의 크리미아 반도에 전설적인 마산드라 와이너리가 있다. 이곳에서는 1941년 11월, 나치의 크리미아 반도 상륙이 있었고 이들의 침탈에서 회귀한 와인들을 구하고자 하는 피난작전이 있었다. 어떻게 이들 황금의 수장품을 구했는지에 대해 당시 셀라의 총 책임자였던 니콜라이 소보레브(Nikolay Konstantinovich Sobolev)의 증언을 통해 살펴본다.



마산드라가 있는 크리미아 반도의 가피르 언덕

## 마산드라 황금의 수장품

마산드라 와이너리의 지하 까브에는 짙은 먼지를 뒤집어 쓴 수많은 희귀한 와인들이 수장되어 있다. 지구상에 유일한, 그리고 오래된 세월을 식힌 와인들이다. 이 와이너리는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이던 니콜라이 2세(Nicolay II)에 의해 1897년 문이 열렸다. 이때부터 와이너리의 깊숙한 까브에 황금의 와인들이 수장되기 시작한 것이다.

초기에는 마산드라 이전에 이미 크리미아 반도에서 수준 높은 와인의 컬렉션을 해왔던 황태자 보른초보(Prince Vorontsov)의 와인과 또 다른 와인의 컬렉터이던 황태자 골리친(Prince Golitsyn)의 수장품을 한데 모아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 수장품의 목록에는 세계적인 와인들이 있었다.

- 세리 1775~1848 빈티지
- 사페라비(Saperavi) 1888
- 세븐즈 헤븐(Seventh Heaven)
- 포트와인 1889
- 마데이라, 까오르, 토카이 등

## 1941년 10월, 피난의 기록

2차세계대전의 전운이 짙을 무렵, 독일 나치군은 러시아로의 진격을 위해 전략적 고두보로 크리미아 반도를 선택, 전격적으로 상륙을 감행했다. 1941년 11월 1일의 일이었다.

마산드라 와이너리는 전세의 흐름을 예견, 1941년 10월부터 와이너리가 수장하고 있던 황금의 와인들을 피난시킬 준비에 착수했다. 우선 병입된 와인들을 넓은 앞마당에 내놓고 일련번호를 매긴 후 단단히 포장했다. 그리고 숙성이 진행되는 오크통의 와인은 통째로 피난시킬 준비를 서둘렀다.

10월달 크리미아 반도의 가을 날씨는 따뜻하고 화창했다. 와이너리 앞뜰의 준비된 와인을 싣고 약 2km 떨어진 항만으로 실어 나를 우마차, 자동차 등이 함께 뒤섞여 있다.



1941년 11월 1일, 독일 나치군의 상륙에 대비해 마산드라의 수장품을 피난시키기 위해 셀라의 앞마당에 내놓은 와인들

## 1941년 11월 1일

예상대로 독일 나치군대가 크리미아 반도에 상륙했다. 시간이 촉박했다. 포장된 병들은 골장 항구로 직송하고 아직 숙성통에 가득 담겨있는 1941년 빈티지의 와인은 하는 수 없이 통을 비우고 와인을 쏟아 버렸다. 검붉은 와인이 비탈진 계곡을 따라 알타의 앞바다로 흘러들었다. 바닷물 색깔이 붉은 기를 띄었다. 독일군에게 한 글라스의 와인도 넘겨주지 않겠다는 와인 양조자들의 한결 같은 심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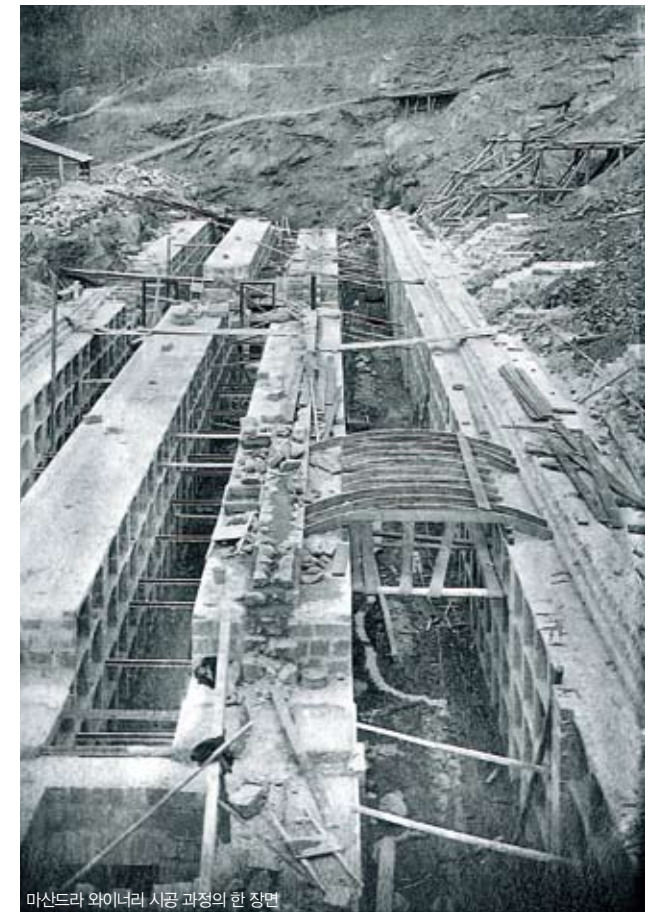
와인의 대 수송은 신속히 이루어져 내륙의 다른 피난처로 향했다. 선박으로 5항차, 그리고 다시 열차에 의해 내륙으로 향한 것이다. 제 1의 피난처는 조지아의 수도 트비실리(Tbilisi), 크리미아 반도에서 동남향으로 흑해를 가로질러 조지아의 항구에서 내려 다시 내륙의 최종 피난처로 옮긴 것이다. 두 번째의 최종 목적지는 아제르바이잔의 바쿠(Baku). 이 역시 같은 항로에 따라 운송되고 다시 열차로 카스피의 바닷가 수도 바쿠로 옮긴 것이다. 제 3의 피난처는 쿠이비셰브(Kuybyshev), 러시아의 내륙 도시로 바로 카자흐스탄 북쪽 국경에 있는 도시이다. 수송물량은 모두가 와인이 57,000병, 오크통 배럴이 120만 리터였다. 그리고 피난처로 옮긴 와인의 목록에는 빼노 그리, 뤼스까, 마데이라, 포트와인 등이었다.

## 전쟁이 끝나다

전쟁이 끝나고 와인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 왔다. 당초 저장되었던 벽장에는 다음 와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 세리 1755년
- 뤼스까 1910년
- 세븐즈 헤븐 와인
- 마데이라 1937년 등등.

이들 와인이 별 탈 없이 그들의 자리로 되돌아 왔다. 그리고 지금 다시 먼지를 뒤집어 쓰고 긴 잠을 자고 있다.



마산드라 와이너리 시공 과정의 한 장면